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23

“우리도 함께 뛰는다”

‘호남 마라톤의 대명사’ 제45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가 23일 앞으로 다가왔다. 3·1절을 계승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다지는 이번 대회는 전국의 달리기동호회·기관 단체·시민들의 잇단 참가신청으로 벌써부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올 대회에 참가하는 단체팀들을 소개한다.

회원·건강부부 행복 나들이 충청인 자존심 걸고 달린다

논산마라톤 클럽

“호남의 대표적인 마라톤대회에 참가하게 돼 벌써부터 설레인다. 아울러 이번 대회를 통해 충청도마라톤의 진수도 보여주겠다.”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처녀출전’하는 ‘논산마라톤클럽’(회장 임광호·이하 ‘논마클’)이 다부진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2000년 마라톤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산행 동반자들이 결성한 ‘논마클’은 10년만에 논산지역 대표적인 마라톤동호

회로 자리 잡았다. 현 회원 50명 중 35명이 이번 호남원정길에 나선다.
 ‘논마클’의 원정은 광주지역 첫 참가 대회라는 사실 외에도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 올해 회갑인 안병철씨의 풀코스 100회 도전이다.

‘SUB-3’ 달성자 9명 참가

마라톤동호인들로서는 ‘명에 훈장’과도 같은 ‘풀코스 100회’를 이번 대회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안병철씨는 “광주일보 마라톤은 3·1 정신을 기리는 뜻 깊고 오랜 역사를 지닌 대회인 만큼 ‘풀코스

100회’를 기념할 최적의 조건을 갖춘 대회이다”면서 “나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대회가 될 것”이라고 출전 소감을 밝혔다.

또 이번엔 안병철씨 기록의 절반인 풀코스 50회를 기록할 허광환씨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대회 개막일을 기다리고 있다. 허광환씨는 ‘SUB-3’(풀코스를 3시간 이내 완주) 기록도 갖고 있는 마라톤 베테랑이다. ‘논마클’에는 ‘SUB-3’ 달성자가 허 씨 외에도 박용팔·정용화·이용철 씨 등 8명이나 포진해 있다.

65세로 이 동호회의 최고령인 정은수씨는 아직도 탄탄한 체력을 과시하며 훈련에



3·1절 마라톤에 처음 출전하는 ‘논산마라톤클럽’은 안병철씨의 풀코스 100회 도전 등 뜻깊은 기록을 남기며 회원들의 친목도 더욱 다질 계획이다.

빠짐없이 참가하고 있다. 부부끼리 달리는 회원도 5쌍이나 된다. 이들 중 박영모-문금

안병철씨 풀코스 100회 도전

희 부부는 올해로 7년째 같이 달리고 있는 ‘건강부부’로 회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

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광주서 열린 100km마라톤에도 출전해 ‘강철체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논마클’은 1주일에 네번씩 달린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논산공설운동장에 모여 트랙을 25바퀴 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공설운동

장에서 탐정리 저수지까지 장거리 훈련을 실시하며 가끔은 인근 반야산을 오르기도 한다.

‘논마클’은 이번 광주원정에서 충청도 마라톤의 자존심을 걸고 끝까지 완주하는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한·중·일 축구자존심 대결 펼쳐

동아시아선수권 개막... 한국 내일 오후 7시15분 홍콩과 첫 경기

한·중·일 아시아 최강의 축구 삼국지가 될 동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 6일 막을 올린다. 이대회는 200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4회째를 맞는데,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는 한국에 일본과 중국이 강력한 도전장을 낸 자존심 대결의 장이다.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괌, 홍콩, 북한, 마카오, 몽골, 북마리아나 제도인데 한국과 중국, 일본은 본선에 자동 출전하고 나머지는 예선을 치러야 한다.

이번 대회에는 홍콩이 2005년과 2008년 연속으로 본선에 진출한 북한을 예선에서 따돌리고 다크호스로 출전한다. 본선에 출전하는 4개국은 맞대결 방식으로 각 팀이 3

경기씩 리그전을 치러 승점을 따져 상금 50만 달러가 걸린 우승팀을 가린다. 승점이 같으면 득실점차, 총득점, 맞대결 승점의 순서로 순위를 결정한다.

타이틀을 떠나 대회에서 두드러지는 면은 영원한 숙적 한국과 일본의 물러설 수 없는 맞대결이다. 동아시아선수권 한일전은 월드컵 본선의 전후에 국내 리그 상비군들의 평시 전력과 사령탑의 지도력을 점검하는 대회로서 감독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한일전 다음으로 주목되는 자존심 싸움은 30년 넘게 지속된 중국의 공한증(恐韓症)이다. 중국은 1978년 12월 태국 아시안게임에서 한국과 처음으로 국가대항전을 치른 이

후 27차례 경기에서 16패11무를 기록하고 있다. 우격다짐으로라도 이겨보자는 의지가 있는 듯 필드에서 목격되는 중국의 허슬 플레이가 때로는 해코지로 느껴지기도 한다.

한편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한국대표팀은 7일 오후 7시 15분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홍콩과 첫경기를 갖는다.

홍콩은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팀 가운데 최약체로 꼽히기 때문에 골 퍼레이드를 벌일 기회이다.

한국은 국가대항전(A매치) 상대 전적에서 31전 22승 5무 4패로 홍콩에 절대적 우위를 지키고 있다.

1958년 친선경기 뒤로 한 차례도 진 적이 없고 1973년 5월 동대문에서 열린 월드컵 1



차 예선에서 이긴 이후로 11연승을 이어가고 있다. 객관적, 상대적 약체로 꼽히는 만큼 한국으로서는 그간 아쉬움으로 지적돼온 골잡이들의 결정력이 얼마나 발휘될 수 있을지가 주요 관심사다. /연합뉴스

나이지리아 축구 감독에 히딩크 러시아 감독 물망

올해 월드컵에서 한국과 맞붙을 나이지리아 축구대표팀 감독에 거스 히딩크(64) 러시아 대표팀 감독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나이지리아 축구협회는 최근 사이부 아모

두(52) 대표팀 감독을 경질하고 외국인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새 사령탑 후보로는 히딩크 감독과 한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요하네스 본프레레(64), 프랑스 출신의 에르베 르나르(42) 잠비아 대표팀 감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세 명의 후보 중 히딩크 감독이 가장 무게감이 있으나 나이지리아 대표팀을 맡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화촉

▲정상기(전 KT&G)·박옥춘씨 차남 현성(금호 H.T)군 김재욱(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김인숙씨 딸 소영(한국광기술원)양=6일(토) 낮 12시 상무지구 예벌루션웨딩컨벤션 3층.

▲이종무(전 여천시장)·박추자씨 아들 참훈(이비인후과 의사)군 윤맹식·이광립씨 딸 유금양=7일(일) 낮 12시30분 서울시 서초구 엘타워 7층(그랜드홀)

무음

▲이금현씨 별세 김영길·영만·영창·영권·영숙씨 모친상=발인 7일(일)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CBS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젊은열정을 찾습니다

2010 CBS사원 공개채용 안내

이 모집대상 및 회사에

모집부서	모집인원	연령	학력
1부서	1명	20~29세	대졸
2부서	1명	20~29세	대졸
3부서	1명	20~29세	대졸
4부서	1명	20~29세	대졸

07 문의
 인사팀 02-3400-1111, 02-3400-1112, 02-3400-1113
 *지원서 제출은 2월 10일까지 www.cbs.co.kr CBS사원 공개채용 게시판
 *서류접수 기간: 2월 10일(수) 오후 5시까지 / 2월 11일(목) 오전 9시

Media Group CBS